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 335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91건이 지적되었으며 사업이 미진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는 반면 적극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반영되도록 심사를 진행하였다.

김광수 의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부안 발전과 군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군민의 성원에 보답해 드리겠다는 인사와 함께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모범음식점 대표 관광자원 육성

고창군이 위생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이 우수한 모범음식점을 '고창 방문이해'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창군은 모범음식점 36개소를 지정하고 지정증 수여와 함께 영입자 간담회를 열었다.

고창군은 지난달 10일부터 좋은 식단 이행 기준 준수 여부와 위생·서비스 수준, 음식문화개선 노력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현장평가와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 36개소를 지정했다.

모범음식점 대표들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군을 대표하는 음식점으로서 고창군 관광전도사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접객업소 중 타 업소에 모범이 되어 위생 환경 개선,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등 녹색음식문화를 조성하는 업소다.

/고창=김영식기자

도시재생으로 확! 바뀐다

고창군 터미널 일원,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최종 선정

고창군 고창읍 터미널 일원이 도시 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돼 대대적인 변화가 진행된다. 특히 1661억원 상당의 막대한 국·도비 등이 투입돼 '신성장 유기농가공 산업메카'로 거듭날 예정이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고창읍 터미널 일원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그간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대도시 중심으로 선정돼 왔다. 하지만 고창군은 사업의 필요성과 수행의지 등을 높게 평가받아 전국 농어촌지역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고창군은 터미널 일원(8202㎡)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661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42억원, 군비 125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원, 기타 1044억원 등)을 들여(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신성장 유기농 가공 산업 거점'을 만든다.

상하유기농우유, 복분자연구소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기농제품을 내놓으면서 유기농가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공공복리시설인 터미널과 융복합하면서 중소도시의 쇠퇴한 터미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지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식당가와 다양한 상점들을 입점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

특히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창업하고 실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청년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형 오피스텔 20세대 공급도 예정돼 있다.

또한 터미널에서 고창고등학교까지의 협소한 도로를 전선지중화, 친환경 보행 등을 통해 추억의 거리로 조성하고, 곳곳에 노천카페와 포토존 등을 설치해 '디자인 특화 거리'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15일 '연지길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마치고 청춘활력소 3층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 심화 과정 수료식

정읍시, 19명 수료... 주민역량 강화로 연지길 도시재생 기반 조성

정읍시는 15일 '연지길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 과정을 마치고 청춘활력소 3층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연지길 도시재생 아카데미 심화 과정은 도시재생사업 현장에서 실무자에게 요구되는 도시재생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교육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분과 구성, 도시재생 사례교육,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현장 교육, 선진지 견학, 활성화 계획 수립 전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들이 원하는 연지길 도시재생 사업발굴을 위한 주민토론회 등 총 12회에 걸쳐 진행됐다.

수료식에서는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19명이 참석해 수료증 수여와 함께 소감을 발표하고 도시재생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한 고정숙 위원장과 전희숙 부위원장, 고정숙 위원에게 개근상을 시상하고 주민협의체 회원들에게 시상품을 전달했다.

연지길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활동가와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주민 주도형 교육과정이다.

교육에서는 도시재생 개념에 대한 이해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례, 예비사업 성공지역 방문 및 체험 교실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연지길 도시재생 아카데미에 열정으로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식품부 주관 '으뜸촌' 2개 마을 선정

체험·음식·숙박 3개 부문 모두 1등급... 시설·서비스 수준 '으뜸'

정읍시 소성면 꽃두레 행복마을과 칠보면 태산산비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협의회가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부존 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정당한 자연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꽃두레 행복마을은 세미나, 워크숍, 전문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최적지다. 꽃두레 행복마을센터에서는 권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푸드 체험과 친환경 농업 체험, 구질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토속음식과 자연환경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어우러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태산산비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선비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선비의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숨 쉬는 태산산비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많은 선비 문화유산이 남아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부서 선정

부안군은 20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과 우수부서 6곳을 최종 선정했다.

군은 각 부서 추천 적극행정 우수사례 28건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팀장 7명의 1차 실무심사를 거쳐 4건의 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심의 결과 재무과 세입집수팀 조희재 주무관이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노후 경유차량 처리와 체납자 세부담 경감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사례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한양대 건축학과와 거버넌스를 구축한 미래전략담당관 업무나 팀장과 각종 인허가 보증서 관리기능 개선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인 도시공원과 서경원 주무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이송 처리 민간위탁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의 대체사업을 발굴한 상하수도사업소 김미경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에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상 우대조치와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최우수상에는 재무과 △우수상은 해양수산과, 미래전략담당관 △장려상은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담당관 민원과가 선정돼 부서 표창 및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첨단단 핵심 연구기관 지역발전 전략 논의

정읍시와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소재 연구기관들이 지역발전 전략 모색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15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방사선기기표준화연구소 회의실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방사선진흥협회 △(재)농축산물 미생물 산업육성지원센터 △전북대 정읍첨단 과학캠퍼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핵심 연구자 19명과 함께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정읍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와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했던 '지역혁신기관 융복합 R&D 기획 연구그룹 지원사업'의 성과보고회로 시작했다.

이어 한국방사선진흥협회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방사선기기 품질관리 및 검정체계 고도화 사업에 대해 연구자들의 아이디어 제시와 자유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또 정읍시 현안 사업 설명과 함께 지역발전 가속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신정동 연구단지 내 종사자와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